

“문제와 인생”

욘기 1:21-22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큰 오해가 한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한 인생 = 문제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오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가 언제일까요? 그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을 때 그는 죄를 짓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없는 교회를 찾아 다닙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어디에도 문제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요, 날마다 부흥했던 교회이며 사랑이 넘쳤던 교회였습니다. 그랬던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사도행전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 문제가 없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명한 설교가 놀만 빈센트 필 목사는 “문제없는 사람을 찾아가려거든 공동묘지로 가십시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 있는 증거”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 없는 삶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게 다가오는 문제는 내게 던져진 운명으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쉽게 던지는 질문이, “왜 내게?” 라는 질문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원망섞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으로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체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믿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둘째, 문제를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그 원인을 보통 외부의 탓으로 돌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적 상황으로 인해 내게 문제가 발생했노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내게 다가오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내 삶 속에서 회개해야 할 것

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인이 외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도다”(시 34:17-18)

문제가 생길 때, 마음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 고난과 어려움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내게 이런 일이?” 라는 생각을 갖고 이해하려 들면 안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 그 당시에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계획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욘이 당한 어려움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약하며,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행복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을 잡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잡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행복은 실체가 없는, 마치 그림자와 같은 행복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으십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셋째,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야 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 33:2-3)

평소에 기도를 잘하지 않던 사람도,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와 어려움을 놓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가 왔다고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다더라면, 그들은 홍해 바다를 둘로 찢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문제를 만나지 않았다더라면, 그 긴 시간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곧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자신의 문제로 초청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전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넷째, 문제를 만나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 50:14-15)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의 자녀들도 다 잃고, 아내도 자기를 배반하여 나가버리고, 병으로 인해 온 몸을 기왓장으로 긁어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든 우리는 그에 대하여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유물된 우리가 주인되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 1:21-22)

또한 욥은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 23:10)

나는 내 앞길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욥은 인간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 결국 자신을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를 보며, 그 처참한 상황속에서도 그나마 감사한 것은, 그래도 여전히 그 모든 상황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주관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큰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일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마다 오히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오픈할 수 있는 얘기들 중) 내 인생의 가장 큰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때의 상황을 간략하게 나누어 주시고, 그 어려움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또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결되기 원하는지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말씀에서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네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